

# 中國, 韓國特許 직접 出願 인정 出願者 國名 「南朝鮮」 表記 조건

## 日本經濟 報道

中國政府는 韓國企業의 特許 直接 出願을 인정키로 한것으로 지난달 31일 밝혀졌다.

지금까지 中國은 韓國企業이 第3國의 현지 法人을 통해 出願한 特許外에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韓國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는 직접 出願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日本의 니혼게이(日本經濟)新聞이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中國은 이와관련 北京과 上海에 각각 1개소, 香港의 2개소등 모두 4개소에 있는 십의 대리사무소(特許事務所)에 대해 韓國企業으로부터의 特許 出願을 접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이 新聞은 보도했다.

또 韓國企業이 韓國內에서 이미 特許出願을 끝냈을 경우, 中國도 出願時期를 소급하여 權利保護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도록 한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出願者의 國名은 「大韓民國」이 아닌 「南朝鮮」으로 표기토록 했다고 이 新聞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國名 表記에 따른 調整이 요청되고 있다. <㉞>

## ● 中國 工所權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本會는 지난 14일 오후 2시 中國永新專利代理公司 거보(戈泊) 총경리를 초청, 全經聯 大會議室에서 中國特許法 전반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거보 총경리의 韓經 吳春 昊記者와의 인터뷰내용을 소개한다.

<中國永新專利代理公司>

거보(戈泊)총경리

『최근 中國과 韓國간 무역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中國政府는 韓國기업의 對中國 직접특허출원을 인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상표 직접출원

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中國정부의 행정 체제상 상표권이 따로 있기 때문으로 이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中國의 특허제도를 소개하고 韓·中間 특허자료등의 교류를 위해 최근 韓國을 찾은 거보(戈泊) 中國永新專利代理有限公司총경리는 이에 따라 韓國기업의 對中國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中國은 外國人의 특허출원을 받기 위해 北京 上海 香港에 각각 대리사무소

를 두어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소도 香港에있는 2개 대리사무소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한다.

『지난 85년 4월부터 88년 11월말까지 3년반동안 中國에 출원된 공업소유권은 모두 8만9천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정도인 1만9천건의 외국인의 출원입니다.』

戈총경리는 韓國의 출원건수도 제3국의 현지법인 등을 통한 간접출원등으로 이미 2백건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㉞>